

#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은 이슬람 민속복식 미의 연구 -서남아시아의 이슬람 문화권을 중심으로-

서봉하<sup>†</sup> · 김민자\*

용인송담대학 스타일리스트과,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 A Study on the Beauty of the Islamic Folk Costume, Affected by Islamism -Focusing on the Islam Culture Area in Southwest Asia-

Bong-Ha Seo<sup>†</sup> · Min-Ja Kim\*

Dept. of Stylist, Yong-in Songdam Colleg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7. 11. 15. 접수)

### Abstract

The costume of Islam cultural area has been affected by the strict social structure, formed by religion, and traditional costume of Islam has been maintained up to these days under the influence of religion. Islam Traditional Costume, which is the succession of the traditional costume of southwest Asia region, became armed with the form of closed costume due to the chastity and oppression. There are figurative features of Islam Folk Costume; first, the dimensional form due to the ampleness, covering the body, second, the reinforcement of closed form such as chador and burqa, third, the symbolism such as the adornment or incantational ornament, which has been inherited from the former times of Islam era, fourth, the color, simplified with black and white. The aesthetic values of Islam folk costume are represented with 'The beauty of abstinency', suppressing the ornamentation and color, caused by the strict social atmosphere under the influence of the form of traditional costume and religion, 'The beauty of concealment' due to the closeness, with affluent costume forms, covering the body and even concealing the face, and 'The beauty of symbol' which is demonstrated with incantational ornamentation of face and interior decoration. In some nations amongst Islam nations, the wearing of hijab is strictly regulated but black chador and burqa are regarded as negative symbols, representing the closeness and oppression of Islam. It is the product of Orientalism from the western perspective. The Islam Hijab culture is the symbol of oppression towards women, but, on the other hand, it is the device to protect women and the traditional culture, symbolizing the identity.

**Key words:** Islam, Folk costume, Hijab, Chador, Orientalism; 이슬람, 민속복식, 히잡, 차도르, 오리엔탈리즘

### I. 서 론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과 팽창은 아시아를 비롯한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cartrip@naver.com

본 연구는 서울시 기술기반 구축사업(10956)에 의해 수행  
되었음.

세계 여러 지역을 근대화의 과정으로 편입시켰고, 서  
구중심의 획일화는 민속복식의 특징을 소멸시켜왔다.  
이에 반발하여 전통을 고수하려는 움직임도 세계 여  
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서남아  
시아의 이슬람 문화권이다. 이슬람 문화권은 오랜 기  
간 동안 서구의 기독교 문화권과 대립 및 갈등의 양  
상을 보여 왔으며, 오늘날에도 강력한 근본주의 정책

으로 인하여 이슬람 고유의 전통복식을 착용하고 있다.

종교는 인류사회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문화현상의 하나로서 한 문화권의 사회구조, 규범, 가치관, 미의식 등에 영향을 준다. 김해연(2003)에 따르면 “종교 문화는 그 나라의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초석이 되었으며, 종교를 보면 그 나라 국민들의 심성과 정신세계와 문화를 엿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종교에 의한 신념은 여러 형태로 표현되는데, 한 문화권과 개인의 가치관과 미의식 등이 종합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인 복식에도 종교의 영향을 받은 규범과 사회구조, 가치관과 미의식 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특히 서남아시아의 이슬람 문화권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종교적인 전통을 뚜렷하게 고수하고 있다.

이슬람교는 세계의 고등 종교 중 가장 늦은 서기 600년경에 탄생한 종교이다. 이슬람 민속복식은 이슬람 탄생 이전부터 전해오던 복식의 특성이 이슬람 복식으로 간주되고, 그러한 전통이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Koran)』의 해석에 바탕을 둔 여러 종교적 제도와 사회적 규범에 의하여 폐쇄적으로 변화 또는 강조되어 왔다. 히잡과 차도르로 대표되는 복식은 이슬람교의 종교적 전통과 신념의 상징으로 굳어져 버렸으며, 일부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폐쇄적 형태의 엄격한 복식제도를 종교적 사유로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슬람의 전통과 이슬람교의 이념, 코란, 근본주의 등과 이에 영향을 받은 사회구조 등 여러 종교적 요인이 이슬람 전통 복식의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은 전통 복식의 조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폐쇄성이 강한 이슬람 민속복식의 미적 가치에 대한 고찰을 한다. 본 연구는 지리적으로 서남아시아의 중심이며, 이슬람 색채가 강하고, 엄격한 이슬람 전통복식을 고수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의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유럽을 기준으로 한 중동이라는 용어를 배격하고 서남아시아, 아랍, 이슬람 문화권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슬람 민속복식은 그 형태적 특성과 발생 기원의 특징으로 인하여 복식미학, 인류학, 민속복식학 등 여러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하고, 현대 패션의 모티브로도 자주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김정아 외(2005)의 ‘이슬람풍 패션에 관한 연구’에서

이슬람 민속복식이 부분적으로 다루어 졌으며, 박금주(1992)의 ‘팔레스타인 여성 복식의 고찰’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20세기 초 복식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이슬람권의 복식양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 전통, 물리적 환경, 종교이념 등의 요인 규명, 둘째, 이슬람 근본주의와 이슬람 복식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셋째,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슬람 복식의 조형미 고찰 등을 본 연구의 목표로 한다.

## II. 이슬람교의 종교적 이념에 대한 고찰

Ackerman(1967)은 다른 예술과 특징적으로 구별하거나 유사하게 규정지어 주는 양식을 이루는 요인, 즉 양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통(convention), 물질적 대상(material object), 기술 혹은 과정(technique or process)이라고 하였고, Hamilton(1988)은 층상모델에서 복식이란 세 가지의 기본적인 서로 구별되는 문화구성 요소, 즉 기술(technology), 사회구조(social structure), 이데올로기(ideology)로 이루어 졌다고 보았다. 이슬람 문화권의 복식 역시 종교적 이념과 종교로 인한 엄격한 사회구조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오늘날까지도 이슬람교의 영향에 의하여 전통 복식이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더욱 엄격해진 복식 규정을 가지게 되었다.

### 1.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서기 570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탄생한 성 예언자 모하메드(Muhammad)가 610년에 창조주 하나님(아랍어로 알라)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탄생한 종교이다. 모하메드는 종교와 국가는 하나라는 원칙을 확립했으며, 이슬람은 하나의 종교일 뿐 아니라 종교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공동체요, 문명이며 문화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이슬람 신앙을 통하여 오래되고 중요한 문화들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슬람교는 이들 문화를 흡수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화시켰다(맥도웰, 1986/1987).

이슬람교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16억명 이상의 무슬림이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져있으며, 무슬림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이슬람 국가는 전 세계에 50개국에 넘는다. 이슬람에는 많은 종파가 있으나 약 80%가 정통적 지위를 누리는 순니파, 나

머지의 대부분이 시아파이다.

이슬람교는 기독교와 함께 유대교에서 비롯된 종교로 유일신인 창조주 하나님(알라)을 믿으며, 유일신을 섬기는 신본주의 종교로 창조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슬람은 자비와 사랑, 안정과 행복, 친절과 관용, 이해 이 모든 것을 포괄한 종교이며, 평화, 평등, 국제적인 무슬림 형제애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슬람에서의 평등사상은 하나님 앞에서 국적, 피부색, 언어, 빈부귀천, 신분의 고하가 있을 수 없음을 뜻한다(김해연, 2003). 114장으로 구성된 이슬람의 경전 『코란』은 대부분 모하메드가 기록하였고, 나머지는 그의 제자들에 의해 기록되었다.

이슬람교는 7, 8세기에 급속히 확산되어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와 스페인, 그리고 인도와 동남아시아까지 뻗어 나갔다. 이슬람 문명은 강력하고 찬란했었지만, 한때는 서구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현대에는 이슬람 부흥운동인 이슬람 근본주의가 부각되고 있다(스마트, 1999/2000). 이슬람의 극단적 단일신론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배격하므로 가시적인 모든 성상을 거부해 버리고, 그 대신 언어나 문헌, 건축, 복식 등에 몰두한다.

## 2. 이슬람교의 이념과 사회구조

이슬람은 서남아시아의 문화를 형성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정치와 법과 경제와 일상의 모든 것을 이슬람의 계율과 정신에 따라 실행하는 무슬림들의 세계를 만들어 냈다. 그 결과 이슬람은 서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구성의 기초가 되었으며, 일상생활의 리듬 자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준거가 되었다.

이슬람의 가르침에 기본이 되는 책인 『코란』은 절대신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예언자 모하메드에게 전달한 최후의 계시이다. 『코란』은 절대신의 말씀이므로 그에 대한 무슬림의 경외심은 대단하여 다른 책 아래 둘 수 없고 또 그것을 낭송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코란』에는 하디스(Hadith, 전통)도 포함되어 있으며 유일신에 대한 표방을 출발점으로 과거의 옳지 못한 관습 등을 배제하려는 사회적 윤리 기준이 계시되어 있다(이훈구, 1991).

무슬림들은 하루 다섯 번씩 예배를 올릴 때마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나는 증언합니다.”라고 되뇌고 있다. 특히 『코란』에서는 절대유일신 알라에게 그의 동반신(同伴神)을 허용하는 것도 저주받을 큰 죄로 규탄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유일신 원리는 무슬림들의 문화 활동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알라와 모하메드의 상(像)을 만들거나 그리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다. 그 결과 이슬람 예술은 서예와 아라베스크식 무늬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절대신의 유일성(tawhid)과 주인성(rabb)은 이슬람 교리 가운데서도 그 중추적 신행(信行)이 되었다. 무슬림이 신에게 굴종하는 행동양식에는 몇 가지 의무규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신앙의 기둥”이라고 한다. 이 기둥은 다섯 개가 있는데 즉 신앙의 증언, 예배의례의 수행, 종교적 납부금, 라마단(Ramadhan)달의 단식준수, 메카순례 등이다(김정위, 1993).

이슬람 경전 『코란』에는 무슬림들의 공동생활 및 개인생활에 대한 모든 영역의 근거가 되는 규정들이 담겨 있다. 즉 『코란』은 종교, 정치, 경제, 법률, 문화, 사회 등 모든 생활영역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무슬림들은 종교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고 삶의 전 분야에서 공동체적 연대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슬람이 전파된 세계 각 지역의 특수성이나 민족성으로도 결코 이슬람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

## 3. 이슬람 근본주의와 전통적 페미니즘

18세기 오스만제국의 쇠퇴로 아랍·이슬람 세계가 서구의 지배에 들어간 이후, 서구 세계는 서구 헤게모니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슬람의 여성 문제들을 들추어 이슬람 문명의 열등성을 주장하고 이를 종교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이슬람 학자들은 이슬람 탄생 이전보다 여성들의 권리와 지위가 향상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조희선, 2001). 여성 무슬림의 평등성과 독립성은 이슬람 세계에 패배하게 퍼져 있는 딜레마이다.

무슬림의 근대는 서양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어떻게 자기를 방위하고, 서양의 근대문명을 어떻게 섭취하며, 이슬람 전통과 조화를 이루어 내는가라는 문제로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무슬림은 광범위한 근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그 반동으로 이슬람 전통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엿보였다. 특히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은 이슬람 운동의 확산을 예고하였고, 이슬람의 문화적

정체성과 정통성을 최고의 이념으로 삼고 있던 ‘이슬람주의자’들은 이슬람 여성을 이슬람 문화의 가치와 전통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 여성들은 이들의 주장을 고귀한 사명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들의 직업과 복식, 여행 등에 규제를 가하는 그들의 입장을 거부하기도 하였다(나카부라, 2000/2004).

이슬람 여권에 대한 오해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여권 탄압이 미친 영향이 크다. 탈레반은 여성의 직업 활동, 외출, 의사를 포함한 남자와의 신체 접촉 등을 금기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 탄압이 전체 이슬람 국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온몸을 모두 감싸는 복장에 눈 부분까지 망으로 가려야 하는가 하면, 어떤 국가는 히잡의 착용여부는 물론 서구식 복장까지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정신과 물질, 전통과 현대, 토속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의 이분법으로 갈등과 혼돈을 계속해 온 아랍 이슬람 여성들은 그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구의 것을 거부하는 이슬람주의 운동자들도 서구와의 충돌에서 공존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조희선, 2001). 과격한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에 의한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이슬람에는 빈민과 약자 구제에 관한 내용도 적지 않다. 전후의 미망인이나 고아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였던 일부다처제를 문란하고 원시적인 이미지로 바꾸어 퍼뜨린 것은 이슬람교의 팽창을 우려한 그리스도교였다(야마오리, 2004/2004). 최근의 긴장된 세계사적 전개 속에서 이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재평가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III. 종교의 영향을 받은 이슬람의 민속복식

이슬람 문화와 예술은 독자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다양한 문화와 문명이 이슬람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슬람은 서로 중복된 수많은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어원, 1997/2005). 서남아시아는 문명의 발상지이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요충지요, 두 문명이 만나는 문화적 요람지이기도 하다. ‘이슬람’이라는 용어는 원래 종교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종교 그 자체가 아닌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형성된 독자적인 문화복합체로서의 ‘이슬람 문명권’을 지칭하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여러 문화와 문명 그리고 종교의 영향을 받은 이슬람

민속복식에 대하여 고찰한다.

#### 1. 이슬람 이전 복식의 계승

종교는 전파되는 지역의 토속 관행에 영향을 받아 통합과 융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유럽에 전파된 기독교와 유럽의 토속 문화가 통합·융화되어 오늘날의 유럽 문화가 형성 되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와 유교가 고유의 토속 관행과 혼합되어 중국과는 다른 우리 고유의 문화가 형성 되었다. 이슬람 문화 역시 아라비아 반도를 비롯한 이슬람이 전파된 지역의 토속 관행과 어우러져 오늘에 이르고 있으므로(조희선, 2004) 이슬람 문화권의 복식 역시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슬람 문화권 복식은 레이어드(layered)와 드레이퍼리(drapery)라는 공통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오랜 세월 전부터 강렬한 태양과 뜨거운 기후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길게 겹쳐 입는 의복과 안면 베일, 머리쓰개 등을 착용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슬람의 전통 복식은 수천 년을 이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신을 감싸는 형태의 복식은 자연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수단이었으나, 이슬람교의 발생 이후에는 이슬람교화 되어서 현재는 이슬람 문화권의 복식으로 정착되었다(Ross, 1985). 힌두교나 불교, 유교 등이 오랜 세월을 걸쳐서 복식의 양식에 영향을 미쳐온 것에 반하여 이슬람 문화권의 복식은 자헨리아 시대의 의식이나 토속적 관행의 복식이 종교적 전통으로 강화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림 1>, <그림 2>와 같이 전신을 감싸는 이슬람 전통복식은 이슬람 시대 이전부터 전해져 오는 건조한 서남아시아 지역의 전통복식이 이슬람 전통으로 이어진 것이다. 현재 이슬람 여성들이 <그림 3>과 같은 전신을 은폐하는 복식의 착용을 강요받고 있는 것도 이슬람 지역의 전통적 복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슬람에서는 근본적으로 어느 계급에 속해 있지 모두가 신 앞에서는 동등한 것이 특색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나 불교 문화권과 같이 성직자나 상류층의 복식이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이 주로 착용하는 옷은 폭넓은 가운인 쥬바(jabbah), 차도르(chador), 부르카(burqa) 등을 통칭하는 아바(abba), 머리를 감싸는 스카프나 터번을 가리키는 이마마(imamah), 봉채선이 없는 백색의 이흐람(ihram) 등인데 이러한 인체를 감싸는 유형의 복식은

아랍지역 이외의 이슬람교도들에게도 입혀졌다(정지년, 유영선, 2001). 이것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은 전통복식이 이슬람교를 상징하는 복식으로 변모하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2. 흉안과 주술**

흉안(evil eye)은 이슬람 세계에서 불운의 원인으로 간주된다. 흉안은 어떤 사람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음에 근거하며, 보는 것과 더불어 말이 동반될 때에는 특히 위험하다고 간주된다(조희선, 2004). 모든 사람

이 흉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깊은 눈을 가진 사람, 특히 늙은 여자와 신부의 눈은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Westermarck, 1973). 흉안을 막는 방법은 노출을 피하는 것이며, 여자들이 베일을 착용하는 것을 흉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이슬람교의 발생 전 팔레스타인의 베두인족은 안면베일에 악귀를 쫓는 부적이라 생각하는 각종 구슬, 보석, 화폐 등을 달았다. <그림 4> 푸른색은 악마의 눈에서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였고, 홍옥은 다산을 보증해 주고 산호는 성공을 확실하게 해주고, 호박은 건강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여 장식물을 달아 안면베일을 만들어 썼다



<그림 1> 푸른외투의 청년, 1587년  
자료출처: 블룸 조너선, 블레어 세일라. (1998). *이슬람 미술*. p. 354.



<그림 2> 후마이와 후마윤, 1430년경  
자료출처: Irwin, R. (2005). *이슬람 미술*. p. 218.



<그림 3> 이란의 샤르바르  
자료출처: *민속의상*. (1991). p. 29.



<그림 4> 악귀를 쫓는 푸른색과 주술 장식  
자료출처: [www.retratodelinfierno.typepad.com](http://www.retratodelinfierno.typepad.com)



<그림 5> 비즈와 빨간색 태슬 장식의 베일  
자료출처: Ross, H. C. (1985). *The art of arabian costume: A saudi arebian pofile*. p. 47.



<그림 6> 동전, 자수 등이 들어간 안면 베일  
자료출처: Ross, H. C. (1985). *The art of arabian costume: A saudi arebian pofile*. p. 47.

(박금주, 1992).

히잡(hijab)은 원래 ‘장막, 커튼, 칸막이, 은폐’ 따위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보이는 것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거나 숨기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 ‘hajaba’에서 파생되었다(조희선, 2005). 이슬람 이전부터 머리를 덮는 것은 겸손과 존경의 표시였다. 과거에는 많은 여성들이 <그림 5, 6>과 같은 정교한 얼굴 가리개와 히잡을 착용했다. 오늘날에는 보다 간소화되었으나 머리쓰개는 아직도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며,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핵심적인 이슬람의 전통으로 남아 있다(Ross, 1985). 이슬람 이전의 아시리아와 페르시아에서는 히잡이 계급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높은 지위의 부인이나 딸들은 히잡을 써야 했다(Guindi, 1999). 히잡은 이슬람이 내려오기 훨씬 전부터 여러 문명 속에 존재하였던 관행이었다.

이슬람의 히잡은 이슬람 사회의 복잡한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지만, 서구인들이 히잡 즉 베일에 대한 담론을 지배해 오면서 베일은 여성의 종속과 억압, 그리고 가부장제의 상징이 되었다. 무슬림 여성의 히잡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바로 이슬람 세계의 복잡한 문화적 현상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조희선, 2005). Said(1995)가 관찰한 것처럼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위협하기 위한 서양의 스타일이다.’ 이슬람의 베일 문화를 서구적인 잣대로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히잡의 착용은 이슬람 이전부터 있었던 서남아시아 사회의 관습과 사회구조, 가족의식 등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 3. 『코란』의 규정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성들에게 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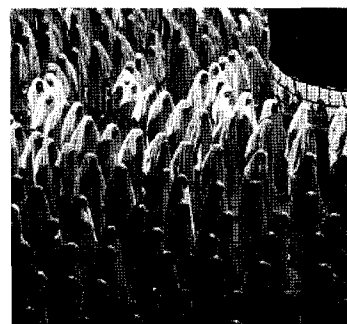
절하라 만일 너희가 여성들을 싫어한다면 이는 알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푸신 좋은 것들의 일부를 싫어하는 것과 같으니라”(코란 4:19), “여성들에게도 남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노라...”(코란 2:228).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교 탄생 이전 시대의 여성들은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인생을 즐기는 단순한 노리개로 취급 받았으며, 불길한 것으로 무시당하고 상품으로 간주하여 매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슬람 시대가 열리면서 여성은 대접을 받고 여성의 권리가 보호받기 시작하였는데, 『코란』의 여러 절에서 그리고 예언자 언행록 여러 부분에서 여성의 권리와 보호가 강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무함마드, 1998/2002).

여성의 히잡과 관련하여 『코란』 혹은 『하디스』 어디에도 여성의 얼굴을 가리라는 말은 없다. 히잡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인식되는 『코란』 33장 59절은 예언자의 부인들과 딸들, 그리고 믿는 여성들에게 외출할 때 ‘질밥(jilbab)’을 두르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여기서의 ‘질밥’은 얼굴이나 머리를 가리는 것과는 관련 없는 헐렁한 긴 원피스를 의미한다. 초기 이슬람 공동체에서 이러한 의상은 이슬람 공동체의 정체성을 표시하기 위한 것, 예언자의 부인들에게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 그리고 여성이 놀림감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 여성 존중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Guindi, 1999). 여성 격리 풍습은 무슬림 세계 전역에서 실행되는 것은 아니나 역사적으로 뿌리박혀 있다.

『코란』 24장 30절에는 “남자들은 여자가 있는 곳을 쳐다보지 말며 불륜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계시내용이 있으며, 24장 31절의 구절에는 “눈을 아래로 뜨고 정숙함을 지키며, 자연히 노출된 것 이외의 꾸밈새를 드러내지 말며, 얼굴 너울을 쓰고 가슴까지 내리우며,



<그림 7> 검정색 차도로르 전신을 가린 여성들  
자료출처: www.wema.com



<그림 8> ‘2005 이슬람 여성 올림픽’ 개막식의 선수들  
자료출처: “이슬람 여성 올림픽 개막”. (2005)

네몸의 가려져야 할 곳을 드러내지 말라'고 이르라.”고 제시하였다. 이 구절은 여성 격리풍속의 근거가 되지만 여성들이 얼굴을 포함하여 온몸을 부르카나 차도르라는 거대한 천으로 몸을 감싸라고 하지 않았다(김정위, 1993). 이 구절은 오랫동안 여러 문화권에 있어서 다양하게 해석되었는데, 일부에서는 <그림 7>이나 <그림 8>처럼 온몸과 얼굴을 가려야 했고,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는 두부(頭部)의 노출이 가능하였다. 오늘날에도 세계 각지의 무슬림 여성들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전신 은폐형의 어두운 색 차도르나 부르카를 착용하는가 하면, 일부 이슬람 국가 여성들은 히잡 착용의 자유는 물론 서구 스타일의 복식을 착용한다.

#### 4. 이슬람의 절제와 억압

전통적인 이슬람 사상은 여성들에게 억압적이었으며, 종교 학자들은 항상 이슬람이 여성들에게 부여한 권리 조항들을 열거했다. 『코란』의 명령은 늘 남녀에게 함께 내려진 것이었다. 그런데 『코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정숙이나 순결은 특히 여성에게만 강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여성의 의복을 엄격히 제한하는 형태로 나타났다(사르다르, 2001/2002). 무슬림 여성주의자들은, 이슬람 초기 여성의 지위는 남성과 대등하였으며, 남녀 불평등의 관계는 이슬람 제국이 확장되면서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통치자들에 의한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무슬림 여성 사회학자인 Memiss(1996)는 “근본주의자들은 여성의 히잡 착용을 무슬림의 이상을 표상하는 것으로 삼고 이것을 국가정책으로 강화하며,

히잡 착용의 조직적 운동을 통하여 여성의 힘을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하였다.

이슬람 사회에서 범죄 예방책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푸르다(purdah)’이다. 푸르다는 원래 여성을 통제하는 수단보다는 여성 보호의 차원에서 시작되었던 관습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이 푸르다는 여성을 격리시켰고, 집안에 격리될 수 없는 경우에는 ‘폼행단정’을 나타내는 외부적 상징으로써 부르카 혹은 차도르를 두르게 했다(Mumtaz & Shaheed, 1987). 베일을 착용하지 않고 외출할 경우 공개적 모욕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더라도 보호 받지 못한다. 따라서 여성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남성 중심적 제도인 푸르다는 여성 보호의 방법이기도 하다. 이런 왜곡된 이슬람의 여성 억압은 <그림 9>와 <그림 10>을 통하여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림 9>는 눈을 포함한 전신을 은폐한 부르카를 착용한 모습이며, <그림 10>은 차도르와 히잡을 이용하여 눈을 제외한 전신을 가린 모습이다. 화려했던 이슬람 지역의 복식은 색채에서도 <그림 11>과 같이 무채색 계통으로 단순화 되었다.

#### 5. 히잡과 내부장식

무슬림 여성들이 착용하는 ‘히잡’을 서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베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슬림 여성의 ‘히잡’과 서구적 의미의 ‘베일’은 그 형태와 착용 및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무슬림 여성의 히잡은 지역, 일의 종류, 일의 상황, 문화와 사회 기준, 윤리적 표준, 관계종류에 따라 다양하며, 차도르나 부르카 등을 포함하여 머리를 감싸는 이슬람 여성 복식의 총칭이다.



<그림 9> 부르카를 착용한 여인들  
자료출처: www.unifem.ie



<그림 10> 차도르와 히잡  
자료출처: www.jenzamayia.tripod.com



<그림 11> 흑·백이 주를 이루는 이슬람 여성의 복장  
자료출처: www.imagesearch.naver.com

이슬람 지역에서 사용된 히잡은 그 구조상 특징을 중심으로 면사포 형, 망사 형, 봉제된 의복 형 등으로 분류된다.

첫째, 면사포 형은 원래 모래바람, 강렬한 햇빛 등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전신형<그림 12>, 두건형<그림 13>, 복면형<그림 14> 등이 있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등의 여성들은 주로 전신형 히잡을 착용하며, 스카프 모양의 두건형 히잡은 전신형 히잡을 착용하기 불편한 노동자나 유목민 사이에서 많이 보인다. 복면형 히잡은 남녀의 엄격한 격리를 위해 착용하는데, 두건형이나 봉제된 의복형 히잡과 함께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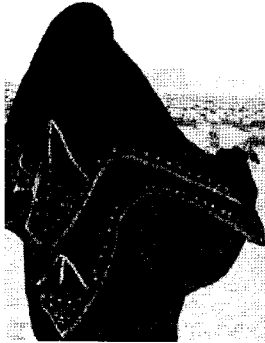
둘째, 망사형 히잡은 착용자의 모습이 외부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모래바람이 강한 서남아시아에서는 다소 부적합하다(그림 15).

셋째, 봉제된 의복형 히잡은 다른 종류의 베일과 함께 착용할 수 있다. 이 베일은 노동을 해야 하는 시

골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애용되었으며, 겨울이 있는 중앙아시아 등에서 사용되었다(이정순, 2002).

여성들은 전신을 은폐하고 외출을 하지만, 히잡 속에는 화려한 고급 의상을 숨기고 다닌다(그림 16). 이런 옷들은 집안에서 입으며 외출 시에는 히잡이나 전통 옷으로 감추므로 보이지 않는다. 여성들은 히잡 안에 금목걸이와 팔찌 등을 하고 있으며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원하는 여성의 심리는 구두와 스타킹 그리고 속옷을 통해 한껏 멋을 부리는 것으로 표출된다. 이들은 베일로 가려지지 않는 눈이나 얼굴, 발 등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꾸민다(그림 17).

원래 이슬람 지역의 각 부족에서는 나쁜 기운을 멀리하기 위해 빨간색과 흰색 직물과 라마로 만든 액막이 부적을 지닌다. 또한 보석이나 금, 은 등으로 만든 팔찌, 귀걸이, 반지나 허리띠 장식을 하였다(Bhandari, Dhingra, 1998). 이슬람의 여성복은 아플리케, 꽃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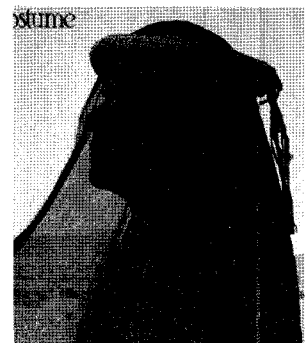
<그림 12> 전신형 히잡의 뒷모습  
자료출처: Ross, H. C. (1985).  
*The art of arabian costume: A saudi arabian profile*. p. 48.



<그림 13> 두건형 히잡  
자료출처: www.news.bbc.co.uk



<그림 14> 복면형 히잡  
자료출처: www.image.guardian.co.uk



<그림 15> 망사형 히잡  
자료출처: Ross, H. C. (1985).  
*The art of arabian costume: A saudi arabian profile*. p. 46.



<그림 16> 단색의 부르카 내부  
자료출처: www.opendemocracy.net



<그림 17> 히잡을 쓴 이슬람 여성의 안면부분  
자료출처: www.rtp.pt



등의 문양, 다채롭고 대담한 색상, 유려하고 흐르는 듯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어서 원래 우아함에서는 최고였으나 현재는 장식에 없는 무채색의 복식을 주로 착용한다(Ross, 1985). 현대 이슬람 여성들이 감춰진 복식의 내부를 치장하는 것은, 이슬람 초기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요되기 시작한 이슬람의 폐쇄적인 복식 전통이 여성의 행동과 표현 등을 구속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 6. 근본주의(fundamentalism)와 페미니즘(feminism)

근본주의는 원래 기독교에서 생겨난 용어로 '보수적인 정치적 힘과 동맹하여 국가, 가족, 교회에 대한 자유주의의 물결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투쟁을 추구하는 공격적이고 신념에 찬 종교운동'을 의미한다(Caplan, 1998).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세계화의 거센 충격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려는 이슬람교도들과 아랍인들이 극단적으로 서구, 기독교, 세계화에 반대해 일으킨 운동을 가리킬 때 많이 쓰이고 있다(정재식, 2004). 이슬람 근본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슬람 질서를 확립하고,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슬람 근본주의는 신(神) 개념 해석의 금지, 종교와 국가의 일치, 이상사회로의 회귀, 경건적 문자주의, 가부장주의, 서방과 동방세계에 대한 거부, 권위주의와 기계적 연대감의 회복 등을 내세우면서 이슬람 국가 건설을 주장한다(Saiedi, 1986). 이러한 이슬람 근본주의와 이슬람 여성들 스스로의 보수성 등으로 인해 많은 무슬림 여성들은 아직도 베일과 격리의 전통 속에 갇혀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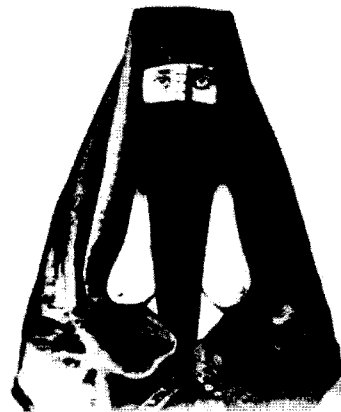
이슬람 사회에서는 1920년대의 강력한 세속적 페미니즘 운동을 시작으로 수십 년 동안 여성운동이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근본주의가 전례 없이 강하게 이슬람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성차 관계를 유지하거나 회귀 하려는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무슬림들은 『코란』에 명시된 여성의 권리를 요구할 때조차도 부정적이다(Smith, 1993). 히잡은 여성의 행동을 규제하기도 하지만,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무슬림 여성들은 그것을 착용해야만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것이 여성을 위한 제도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만들고 있다.

아랍어의 '히잡'이라는 단어는 아랍·이슬람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어휘인 반면, '베일'은 서구에서

사용되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용어이다. 또한 베일은 종종 반 휴머니즘, 반 페미니즘, 혹은 반 인권적인 것이며 낙후성의 상징으로 왜곡되어 이해되고 있다(조희선, 2005). 그러나 이희수, 이원상(2001)에 의하면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이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히잡은 이슬람적 가치에 근거하는 무슬림 여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존재'이다.

서구의 식민지 담론은 아랍·이슬람 사회의 후진성을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문제를 들고 나왔다. 여성의 문제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히잡은 서구인들의 공격 대상이 되어 서구식 담론의 주제가 되었다. 그러나 정작 베일의 이슬람적 용어인 히잡은 아랍·이슬람세계에서 정체성 구현의 상징으로, 서구의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무슬림 여성, 더 나아가 이슬람 문화에 대한 편견과 왜곡은 무슬림 여성의 히잡을 통해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오은경, 2006). <그림 18>은 이러한 서구의 왜곡된 시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서남아시아의 문화는 이슬람의 부산물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 문화는 다양하여 일반화하기 어렵듯이, 이슬람권의 민속복식도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외부세계에는 전신을 은폐한 검정색 차도르와 히잡의 이미지만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있으며, 이것은 서구와 이슬람권 사이에 논쟁과 충돌을 야기하는 요소로까지 발전되었다. 이슬람 여성들은 스스로를 배제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페미니즘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그림 18> 서구에 의해 왜곡된 무슬림 여성의 모습  
자료출처: 조희선. (2005). *무슬림 여성*. p. 170.

<표 1> 이슬람교의 이념적·미학적 개념과 복식에의 표출

종교적 요인	이념적·미학적 개념	복식에의 표출
이슬람의 이전복식 계승	자연환경의 영향 지역 전통이 이슬람화 됨	긴 의복과 쓰개, 레이어드 이슬람의 상징적 문양
흉안과 주술	흉안의 두려움	히잡과 주술장식
코란의 규정	남녀 모두에게 정숙성 요구 여성에게 신체은폐 요구 없음	전신을 가리는 감춤의 복식 무채색의 절제된 미
절제와 억압	여성에게만 정숙성의 강조 신체의 억압과 폐쇄성	안면까지 가리는 감춤 화려한 꾸밈의 복식내부
근본주의와 전통적 페미니즘	전통적인 이슬람 관습의 강화 여성 자발적 폐쇄형 복식 착용	폐쇄형의 무채색 베일 고수 감춤과 절제의 전통복 고수

우리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서구중심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무슬림 여성들은 서구중심주의를 분리해 낸 이슬람 페미니즘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표 1>은 지금까지 알아본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은 이슬람의 민속복식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이다. 이슬람의 종교적 요인을 이념적·미학적 특징으로 분석한 뒤 복식에 표출된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 IV. 이슬람 민속복식의 조형미

이슬람 탄생 이전부터 전해오던 복식의 특성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슬람 복식으로 간주되고, 그러한 전통이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의 해석에 바탕을 둔 여러 종교적 제도와 사회적 규범에 의하여 강화되어 왔다. 히잡과 차도르로 대표되는 복식은 현재 이슬람교의 종교적 전통과 신념을 상징하는 복식으로 굳어져 버렸으며, 현대의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엄격한 복식규정을 통한 억압된 복식제도를 종교적 사유로 지속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이슬람 전통복식의 조형미에 대해 고찰한다.

##### 1. 조형적 특징

이슬람 지역의 전통과 종교적 사유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서남아시아 지역의 복식은 세계화 현상이 뚜렷한 현대 사회에서 매우 특징적이며 뚜렷한 조형적 특징을 가진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요충지로서 여러 다양한 문명과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은 이슬람권의 전통복식과 이슬람교의 영향에 의한 복식의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연환경에 기인한 풍성하고 긴 의복을 들 수 있다. 서남아시아 지역은 대부분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강한 태양과 모래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인체 내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 옷을 겹쳐 입는 아라비아인의 복장은 오랜 관습이었다. 또한 이러한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실용적인 의의가 남녀 복식 모두에서 다양하게 발달하였는데, 전신에 감거나 두툼 헐렁하고 풍성한 스타일과 부풀린 바지가 서남아시아 지역 복식의 특징이다. 차도르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히잡과 카프탄(caftan), 튜닉(tunic), 판초(poncho)형 등의 다양한 복식이 그러하다. 트레이퍼리가 좋은 이러한 풍성한 느낌의 복식들은 의복을 평면이 아닌 입체적으로 인지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둘째, 종교로 인한 폐쇄적이고 억압된 여성의 복식 문화가 그 특징이다. 이슬람 전통복식은 자연환경적인 요인에 주로 기인한 전신을 덮은 형태의 서남아시아 지역의 전통 복식을 자연스럽게 계승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슬람 문화권은 『코란』에 나오는 정숙성에 대한 해석을 여성에게만 엄격하게 적용시키고, 여성 보호와 전통적 페미니즘의 영향 등으로 여성의 전신을 은폐하는 검은색 차도르와 히잡의 다소 왜곡된 복식문화를 형성하였다. 히잡 즉 베일은 이슬람 이전 시대, 아시리아와 페르시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서남아시아 지역의 전통이며, 그리스 시대의 여성들이나 기독교의 비잔틴 사회, 조선시대의 여성들도 착용하던 것으로 여러 문명 속에 존재하였던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슬람이 서아시아에서 여성의 베일 착용이라는 관습을 강화시켰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일부에서는 얼굴을 가리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 엄격한 국가에서는 얼굴은 물론 눈까지 그물 형태의 천으로 가려야 한다. 결국 여성의 복식은 이슬람교의 폐쇄성을 상징하는 다소 부정적인 상

정으로 서구세계에 비취지고 있다. 이러한 이슬람 여성의 복식은 시지각적으로 강한 폐쇄형과 전체형을 띠며, 밋밋한 구성으로 평면적으로 인지되고, 명료한 조형적 특징을 가진다.

한편 이슬람 문화에는 보수적 사회분위기와는 반대로 『천일야화』와 같은 외설적인 이미지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이슬람교와는 영향이 적으며, 오히려 엄숙한 분위기의 종교문화가 이를 억압하여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외설적 이미지의 이슬람 복식은 종교적 영향에 의한 복식을 연구하는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셋째로 이슬람 복식문화에 나타난 감추어진 장식성이다. 서남아시아 지역의 복식은 원래 화려한 색과 문양이 발달해 있었는데, 착용자의 지역, 종파, 지위, 개성 및 종교적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전통의상의 다양한 색상배합과 연출기법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이슬람교에 의하여 장식이 제한되는 흐름은 서남아시아 이슬람 문화권의 남녀의 복식 모두에서 장식의 드러냄을 금기시하게 되었다. 이슬람 지역의 여성들은 전신을 은폐하고 외출을 하지만, 베일 속에는 화려한 고급 옷을 착용한다. 부유층의 여성들은 허잡 안에 금목걸이와 팔찌 등 장신구를 하고 있으며 아름다움을 표현하길 원하는 여성의 심리는 의복 아래로 드러나는 구두와 스타킹 그리고 속옷을 통해 한껏 멋을 부리는 것으로 표출된다. 베일의 질감이 점점 얇아져 베일 속의 옷이 비취지기도 하고(이정순, 2002), 가려지지 않은 눈이나 얼굴, 발 등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꾸민다.

넷째로는 이슬람 지역 복식의 색채문화이다. 여성의 외의는 신체를 덮는 부위나, 길이, 지역 등에 따라 차도르, 부르카, 차르샤프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이러한 의상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엄격함과 강한 은폐성을 나타내는 검정색이다. 이슬람 지역이 오래전 화려하고 찬란했던 장식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슬람 이후의 복식이 꾸미지 않는 형태로 발전했던 것처럼, 복식의 색상도 고대 페르시아의 다양하고 화려했던 것이 사라지고 지금은 검정색·갈색·짙은 파랑색 등의 어두운 계통과 흰색·회색 등으로 단순화되었다.

## 2. 미적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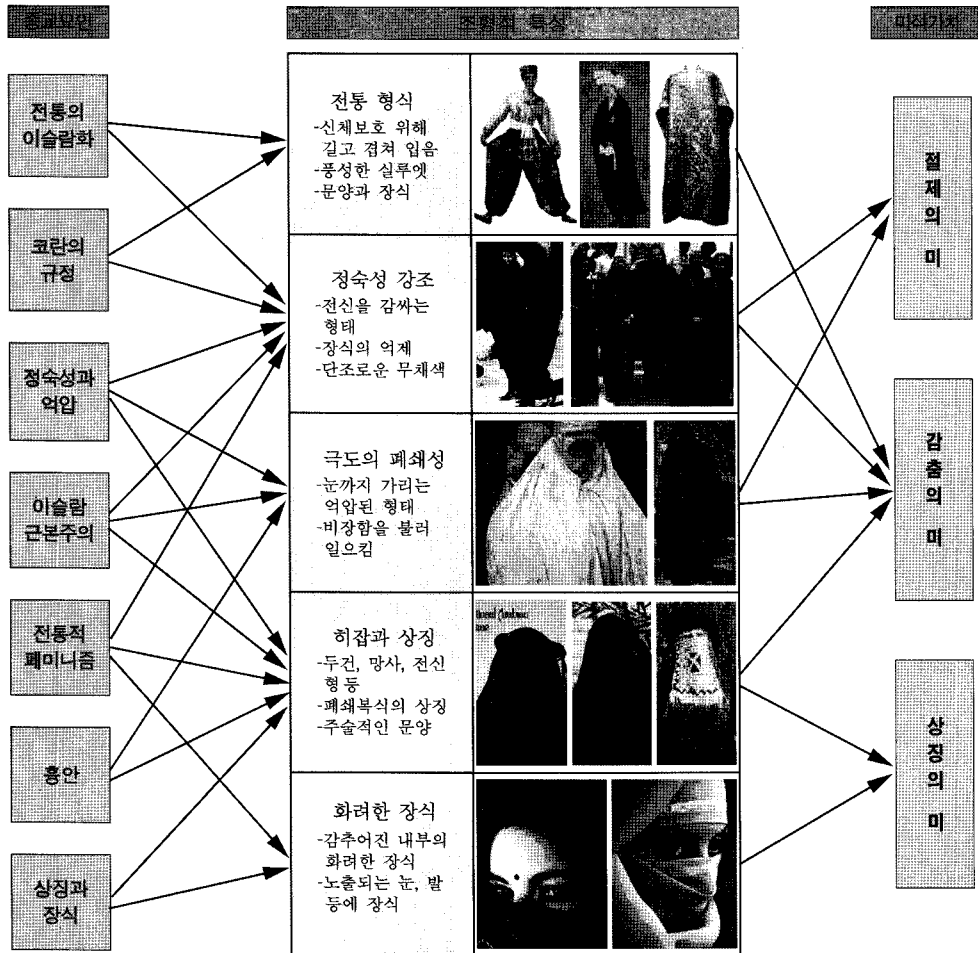
이슬람권의 복식은 불교권이나 힌두권의 복식문화

와는 달리 종교적인 이념체계가 복식의 형성에 기여하고 스며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슬람교는 서기 600년경에 창시되어 서남아시아 지역의 복식을 이슬람 전통 복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코란』의 오역과 여성에 대한 지나친 몸의 통제 는 오늘날 이슬람권 여성의 복식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복식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한 이슬람권 복식에서는 ‘절제의 미’와 ‘감춤의 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며 ‘상징의 미’도 찾아볼 수 있다.

‘절제의 미’는 이슬람 시대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슬람 지역의 여성 억압적 문화와 『코란』에 나오는 정숙과 절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엄격한 사회적 분위기, 최근에는 복식의 규범을 강하게 만든 근본주의 등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절제의 미’는 단조로운 형태로 전신을 덮고 있는 복식의 형식과, 신체와 복식 상의 장식 억제, 단조로운 무채색 복식 등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서남아시아의 이슬람 복식은 뚜렷한 ‘절제의 미’를 보여준다.

‘감춤의 미’ 역시 이슬람 전통의 복식문화와 엄격한 사회규범에 기인하며,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 여성들에게 긴 원피스인 질발을 착용할 것을 명시해 놓은 것에서도 이슬람 지역의 복식형태가 결정되어 왔다. 또한 『코란』의 지나친 곡해와 이슬람의 여성억압에 의해 차도르나 부르카와 같은 극도의 폐쇄적인 복식이 강요되고 있다. 다양한 종교 복식의 보편성 중 하나가 ‘감춤’이라고 할 때 이슬람권의 복식이 가장 폐쇄적이며 ‘감춤의 미’가 두드러진다. 특히 인체의 굴곡을 드러내지 않고, 전신을 평면형으로 인지하게 만드는 검정색의 차도르와 얼굴까지 은폐시키는 복식들은 극도의 폐쇄성을 띤다.

이슬람 사회의 복식은 단순하고 장식이 극도로 억제되어 있으나 이슬람 이전의 일부 서남아시아 복식은 다양한 문양의 자수와 프린지장식, 금으로 된 장신구와 문양 등으로 장식되었다. 이슬람 이후에도 복식이 아닌 이슬람 미술의 장식성은 건축이나 공예품, 카펫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화려하고 환상적인 기하학의 문양을 보여주고 있다. 이슬람 여성의 복식에서는 안면의 베일에 악귀를 쫓는 구슬이나 보석, 화폐 등의 상징적 장식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신체를 검정색으로 은폐하였지만 은폐되지 않고 드러나는 얼굴, 눈, 발, 신발 등의 부분에는 장식을 하게 되는데, 검정색의 복식과 대비되어 더욱 화려한 느낌을 준다. 또한 이슬람 여성들은 검정색 베일 속에 감춰진 복식의



<그림 19> 이슬람교의 종교적 요인과 복식에 나타난 미적가치의 연관성

내부는 화려한 색상의 의복과 속옷, 장신구 등으로 꾸미고 있다. 이슬람권 복식에서는 장식성이 두드러지지 않으나, 위와 같은 특징들에서 ‘상징의 미’를 엿볼 수 있다. <그림 19>는 이슬람권의 종교적 요인과 복식의 미적 가치를 연관성에 따라 정리한 표이다.

### V. 결 론

아시아의 여러 민속복식은 계몽주의 사고에 기초한 서구 기독교권의 복식과는 그 형식과 내재적 가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에는 다양한 자연환경이나 여러 종교, 사회구조 등의 영향을 받은 매우 다양한 민속복식이 존재하여 왔다. 이슬람 문화권의 복식 역시 종교적인 이념과 종교로 인한 엄격한

사회구조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오늘날까지도 종교적인 영향에 의하여 이슬람의 전통 복식이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오히려 더욱 엄격해진 복식 규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슬람권의 복식은 힌두교나 불교처럼 종교적 사상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복식에 반영된 것이 아니다. 기존의 서남아시아 지역 전통 복식이 이슬람을 상징하는 복식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슬람의 정숙성과 억압으로 인하여, 복식에서 색채와 장식이 사라지고 심지어 눈까지도 은폐하는 폐쇄적인 복식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슬람 민속복식의 조형적 특징은 첫째, 인체를 덮는 풍성한 긴 의복, 레이어드와 드레이퍼리 등으로 인한 입체형의 복식. 둘째,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복식

문화로 인하여 인체를 은폐하는 차도르와 브루카 등 강한 폐쇄형과 전체형의 복식. 셋째, 이슬람 탄생 이전부터 이어져온 주술장식, 복식의 내부에 감춰진 장식 등의 상징성. 넷째, 검정색·흰색·파랑색·회색과 같이 단순화 된 색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슬람 민속복식의 미적가치로는 전통복식의 형태와 종교의 영향을 받은 엄격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장식과 색채 등이 억제된 '절제의 미', 인체를 드러내지 않는 풍성한 복식형식과 얼굴까지 감추는 폐쇄성으로 인한 '감춤의 미', 주술적인 안면장식과 내부 장식의 '상징의 미' 등이 나타난다.

이슬람 국가 중 서남아시아의 엄격한 일부 국가에서만 히잡의 착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정색 차도르나 브루카 등의 복식은 이슬람교의 폐쇄성과 억압성을 상징하는 다소 부정적인 모습으로 서구세계에 비취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서구의 기준으로 바라본 오리엔탈리즘의 산물이다. 차도르 등의 이슬람 히잡 문화는 여성 억압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자연환경에 영향 받은 서남아시아 고유의 복식이자, 여성을 보호하는 장치이며, 무슬림 여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자발적인 전통문화이다.

## 참고문헌

- 김정아, 염혜정, 정현남. (2005). 이슬람풍 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9(1), 23-34.
- 김정위. (1993). *이슬람입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김해연. (2003). *동서종교문화교류사*. 서울: 성지출판사.
- 나카무라, 고지로. (2000) *이슬람교 입문*. 양기호 옮김 (2004). 서울: 도서출판 소화.
- 민속의상. (1991). 서울: 주식식회사 라미라.
- 맥도웰, 조쉬. (1986). *이방종교*. 이호열 옮김 (1987). 서울: 기독교지혜사.
- 박금주. (1992). 팔레스타인 여성복식의 고찰-20C 초를 중심으로. *복식*, 19, 205-206.
- 블룸 조너선, 블레어 세일라. (1957). *Islamic arts*. 강주현 옮김 (2003). *이슬람 미술*. 파주: 한길아트.
- 사르다르, 지우이딘. (2001). *이슬람*. 박지숙 옮김 (2002). 서울: 김영사.
- 스마트, 니니안. (1999). *종교와 세계관*. 김윤성 옮김 (2000). 서울: 이학사.
- 야마오리, 테츠오. (2004). *세계의 종교*. 이계성 옮김 (2004). 서울: 서울문화사.
- 어윈, 로버트. (1997). *이슬람 미술*. 황의갑 옮김 (2005). 서울: 도서출판 예경.
- 오은경. (2006). *베일속의 이슬람과 여성*. 서울: 프로네시스.
- 이슬람 여성 올림픽 개막. 수영도 한다. (2005, 1. 25). *중앙일보*, p. 1.
- 이정순. (2002). *무슬림 여성과 베일*.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이훈구. (1991). *한국 전통 종교와 한국교회*. 서울: 연합출판사.
- 이희수, 이원삼. (2001). *이슬람*. 서울: 청아.
- 정재식. (2004). *전통의 연속과 변화*. 서울: 아카넷.
- 정지연, 유영선. (2001). 1990년대 이후 패션에 나타난 종교적 모티브의 표현특성. *복식*, 51(5), 49-50.
- 조희선. (2001). 아랍·이슬람 여성에 관한 고찰. *여성·가족 생활연구*, 6, 23-24.
- 조희선. (2004). *통합과 융화의 이슬람 문화*. 민속 이슬람.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 조희선. (2005). *무슬림 여성*. 서울: 명지대학교 출판부.
- 무함마드, 테르카이트. (1998). *이슬람의 전통과 생활관습*. 최영길 옮김 (2002). 서울: 알림.
- Ackerman, J. (1967). A theory of style. In M. Beardsly (Ed.), *Aesthetic Inquiry: Essays on Art Criticism and Philosophy of Art*. California: Dickenson.
- Bhandari, V. & Dhingra, S. (1998). *Textiles and craft of india*. New Delhi: Prakash Book Depot.
- Caplan, L. (1998). *Studies in religious fundamentalism*. Albany NY: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 Guindi, F. EL. (1999). *Veil modesty, privacy and resistance*. Oxford: Berg Publishers.
- Hamilton, J. A. (1988). Dress as a culture sub-system: A unifying metatheory for clothing and textil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6(1), 1-7.
- Merniss, F. (1996). *Women's rebellion and islamic memory*. London: Zed Books.
- Mumtaz, K. & Shaheed, F. (1987). *Women of pakistan: Two steps forward, one step back?* Lahore: Vanguard Books.
- Ross, H. C. (1985). *The art of arabian costume: A saudi arabian profile*. Fribourg & Switzerland: Arabesque.
- Said, E. W. (1995). *Orientalism*. Harmondsworth: Penguin.
- Saiedi, N. (1986) What is Islaic Fundamentalism? In J. K. Haddan & A. Shupe (Eds.), *Prophetic Religions and Politics*. New York: Paragon.
- Smith, J. I. (1993). Women in Islam. In A. Sharma (Ed.), *Today's woman in world religions* (pp. 303-326).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Westermarck, E. (1973). *Pagan survivals in mohammedan civilization*. Amsterdam: Philo Press.